

02

우즈베키스탄

## 어울림 속에서 찾은 값진 즐거움

- › 활동기관 : 우즈베키스탄 수문기상청  
(Uzhydromet)
- › 자문분야 : 산업 기술
- › 자문내용 : 기상 서비스 현대화
- › 성 명 : 김 재 호



## 어울리자, 그리고 즐기자!

퇴직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처음 만난 개도국에서의 활동이 낯선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타임머신을 타고 20~30년을 거꾸로 돌려놓은 듯한 현지의 사회생활, 문화 수준 등은 막막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잣대로 보면 현지인들의 낮은 수준이 답답하고, 만연한 부정부패 및 무질서는 당황함을 넘어 실망에 가까울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칫 체념하거나 스트레스와 불만에 져서 소극적 활동에 그칠 수도 있다.

성공적인 현지 적응을 위해서는 먼저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한다.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도 부정을 낳는 법.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보다는 상대의 처지에서 바라보고 먼저 다가가 어울리며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자문관 활동의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을 대표하는 최대 성웅이자 왕조를 세운 아му르티무르 동상

처지를 조금만 더 바꿔 과거의 우리 모습을 돌이켜 보면 개도국의 현실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실 퇴직 전문가에게 더 이상의 부귀영화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겠는가. 욕심을 버리고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그들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워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결국 ‘어울리며 즐긴다’는 생각이 더 깊은 이해를, 더 큰 아름다움을, 보다 달콤한 보람을 선사하는 지름길이리라.

### 낮설고 물 선 곳에 서서

처음, 더욱이 아는 이 하나 없는 곳으로의 여행은 그야말로 걱정이었었다. 공항으로의 마중을 수원 기관에 요청해 두었지만 늦은 시간에 만날 수는 있을지,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수원 기관과의 협조에는 문제가 없을지,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할지, 사회주의 체제에서 독립한 국가인 만큼 치안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 생각이 깊어질수록 막막함은 더욱 커졌다.

타슈켄트로 향하는 기내에는 우즈베키스탄 승객들이 대부분이었다. 한눈에 봐도 취업 때문에 한국을 다녀가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다. 드디어 일곱 시간 여의 항행 끝에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 승무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램프에 닿기도 전에 선반 위 짐을 내리는 승객들의 무질서함은 그런대로 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드디어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빠지는 통로를 걷는데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뛰다시피 하는 게 아닌가. 이상하다 여기며 입국장에 도착해 보니 비행기 맨 앞좌석에서 선착순으로 내린 내가 중후반 정도 무리에 끼어 있었다. 뒤에 알았지만 새 국제선 청사로 이전하기 직전이었다고는 하나 마치 낡은 공간과 침침한 불빛, 이마에 땀이 배어날 만큼 낙후된 입국장은 1960년대 시골 기차역 대합실을 연상케 했다. 더욱이 끊임없는 특혜 절차와 새치기, 지체, 그리고 그러한 부조리가 당연한 듯 딱딱한 표정만 짓고 있는 관리들을 보며 실망감과 두려움이 덜컥 들었다.

지루하고 오랜 입국 심사가 끝나고, 다음 코스는 수화물 찾기와 세관 심사. 한숨이 쏟아지는 순간, 누군가 한국말로 NIPA 김재호 자문관이 맞느냐고 묻는 게 아닌가. 이경상 KOICA소장의 영접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구원자의 모습이였다. 이경상 소장의 안내를 받아 세관 심사까지 무사히 무사히... 현지 공항은 환영·환송객이 청사 내부로 들어올 수 없



우즈벡수문기상청 관용 차량인 다마스

고, 청사 외부 출입 금지선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 때문에 출입 금지선 주변은 늘 사람들로 인산인해. 과연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경상 소장의 안내는 한줄기 빛이었다. 덕분에 마중 나온 수원 기관 직원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낮익은 다마스 관용 차량과 국제협력과장을 비롯한 직원 4명이 반갑게 맞아 주었고, 호텔까지 안내해 주어 한결 기가 살아났다. 그들의 친절함에 입국장에서 느낀 짜증스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

### 추방될 수도 있다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등록 제도보다 우즈베키스탄의 그것은 한층 엄격한 절차였다. 위반 시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는 한편 추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가 소개받은 아파트의 소재지인 오비르사무소는 다른 구보다 훨씬 까다로운 곳이었다.

수원 기관에서 알선한 아파트를 임차하고 차량과 직원 2명을 지원받아 짐을 옮겼다. 곧바로 거주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오후 시간에는 접수가 안 되었다. 거주 등록이 되지 않은 아파트에서 숙박하면 불법이라기에 큰 짐은 아파트에 남겨둔 채 기내용 캐리어만 챙겨 다른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했다.

다음 날,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9시가 되자마자 공증 사무소에 들러 입차 관련 공증을 받았다. 그리고는 집 주인과 수원 기관 담당 과장을 대동하고 경찰서 거주 등록 담당 부서(오비르)로 향했다. 그러나 단번에 퇴짜였다. 수원 기관에서 제출하는 문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 또다시 호텔에 투숙해야 했다. 이튿날 보완된 문서를 들고 갔는데, 또 다른 지적 사항이 있단다. 그렇게 또다시 퇴짜. 세 번째 날에는 내가 받은 S-2 비자의 경우 경찰서가 아닌 외무부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한다며 접수가 처리가 되지 않았다. 화가 날 지경이었다. 이후로도 이틀에 걸쳐 외무부를 방문해야 했다. 그런데 주우즈베크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하는 아크리에이션 카드를 요구하는 게 아닌가. 없다고 대답하자 이상하다는 투로 대사관 공문을 첨부하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번거로웠던 것은 매일 반복된 호텔 체크아웃이었다. 전날 숙박 기록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입국 후 근무일 3일 이내에 거주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호텔 투숙 증명서가 거주 등록을 대신하므로 거주 등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크아웃 후 받은 투숙 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다. 결국 8일 동안 4개 호텔에서 투숙과 체크아웃을 반복해야 했으니 생소한 절차에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다. 수원 기관



초기 안착 단계에서 거친 4개 호텔 중 하나인 시티파레이스호텔

에서는 거주 등록 기간에 매일 직원을 대동할 수 있는 지원이 있었으나, 외국인 거주 등록 지원 경험이 없는 상태인 터라 결과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수원 기관 근처에 정해 둔 아파트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서둘러 고려인 중개업자를 통해 일반 절차로 거주 등록을 할 수 있는 다른 구역에 숙소를 정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KOICA 현지 사무소의 협조로 거주 등록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라 할 것이다.

### 요원해 보였던 현대화

어렵사리 거주 등록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정상 근무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일단 임시 사무실을 사용면서 업무 목표를 기상 서비스 현대화로 협의했고, 장비검정·정비부서장을 코워커로 지정받았다. 독립 사무실도 배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사무실에는 컴퓨터, 인터넷은커녕 전화기조차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목제 책걸상과 낡은 에어컨이 고작. 그야말로 30~4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듯했다. 일단 개인용 노트북을 사무실에서 쓰기로 하고 무선 인터넷에 별도로 가입했다. 그렇게 노트북과 모뎀을 휴대하며 사무실과 집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사무실 적용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코워커와 직원들이 모두 순박하고 협조적이어서 무난히 사무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수동식 기상 관측이라 비효율적이고 신속성, 정확성이 부족했다.

기상 업무 현대화의 기본은 장비의 현대화였다. 기상 관측의 자동화 및 전산화가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수동식 아날로그 장비에 의존하는 수원국의 상황에서 현대적 기상 기술 이전 등은 시기상조였다. 기상 분야에 대한 국가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개도국의 시정이겠지만 수원 기관의 예산 사정은 그중에서도 더욱 심각했다. 기압계, 풍향풍속계, 온도계 등등 수십 종에 달하는 기본 장비조차 과거 소련 시절에 사용하던 것들로 제작된 지 50년도 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낡은 장비들이 아직도 작동된다고 하니 견고함만은 인정할 만했다. 그러나 기상 장비의 자동화, 전산화, 디지털화 등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 장비의 운영 개선보다는 새로운 장비로의 교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기상 업무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장급인 코워커를 중심으로 '기상 정보 서비스 현대화의 우선 수행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T/F팀 운영도 시도해 보았다. 하지만 상명 하달 방식의 오랜 사회주의적 관습에 부딪혔고, 중·단기 발전 계획의 필요성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발적 아이디어 창출은 불가능했다.

## 우즈베키스탄의 이모저모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매년 5월 9일 러시아의 대조국 해방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즈베크수문기상청 역시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1년에 단 한 번뿐인 행사인 '뿔룩데이'를 전승 기념일 하루 전날 12시부터 운영하고 있다.

1년 한 번뿐인 행사라고는 하지만 구내 나무 그늘에 야외 식당을 차리고, 담당 직원이 직접 만든 뿔룩을 각 사무실마다 직원 수만큼 배식하는 것이 전부. 이날은 전 직원이 어울려 답소를 나누며 뿔룩으로 오찬을 즐긴 후 오후 근무를 종료하는 게 보통이다. 참고로 뿔룩은 '오쉬'라고도 부르는 우즈베키스탄의 대표 음식으로 우리말로 바꾸면 '기름 밥' 정도로 부를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주요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접대 음식이기도 하



며 평소 매주 금요일에는 각 가정마다 뽕뽕을 만들어 먹고 기운을 재충전한다고도 한다.

한편 야외에 설치된 특별 무대에서는 초청된 귀빈들을 대상으로 기상전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가무가 펼쳐지며, 뽕뽕 외에 또 다른 주식인 논(리뽀시카/뽕)과 제철 과일 음료인 감포뜨가 제공된다. 이때 퇴직 선배들도 초대되는데, 그들을 정중히 모시는 모습은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의 풍습과 비슷해 보였다.

한편 이곳의 결혼식은 대개 2~3일 동안 이어진다. 초청된 악단이 어른 키보다도 큰 전통 나팔을 땅과 하늘, 그리고 사방을 향해 불며 팡파르를 울리는 것으로 결혼식이 시작됨을 알린다. 집에서 소나 양을 직접 잡아 잔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대형 식당이나 호텔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결혼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결혼 전날부터 뽕뽕을 만들어 나눠 먹고 결혼식 당일엔 온갖 음식을 푸짐히 차려 손님을 맞는 것이 전통이다. 모두가 밤늦도록 배불리 먹고 마시며 가무를 즐긴다. 입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음식인 뽕뽕



함께 어울리는 뽕뽕데이



구에 마련된 접수대에 축의금이나 선물을 전달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조혼이 일반적이며, 아울러 부모의 집과 재산을 장남이 아니라 막내아들에게 물려주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생활 측면에서 보자면 수도인 타슈켄트에서는 1년 내내 전기, 가스, 수도, 온수 등이 풍족하고, 겨울에도 부족함 없는 난방 공급이 가능하지만 지방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야간에만 전기를 쓸 수 있는 곳도 많다. 이와 같은 시골 지역의 겨울에는 숨을 누빈 두루마기 같은 전통 의상인 ‘초폰’을 입고 해가 비치는 낮 동안 종일 길거리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을



결혼식 풍속



직원 가정에 초대되어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추위를 견디는 방법이라고 한다. 특히 난방이 제대로 안 되어 잠자리에 솜으로 된 요 몇 겹을 깔아도 추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타슈켄트를 벗어난 지방에서는 가급적 겨울철 가정 방문을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

이외에도 12월 31일에는 집집마다 푸짐한 전통 음식과 술을 사이에 두고 자정이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때로는 늦은 시간임에도 가까운 이웃집을 방문하여 함께 어울리기도 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에게 최상의 대접과 친절,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게 당연한 모습이다.

한편 12월 31일과 관련해 재미있는 현지 속담이 있는데, 이날 잠을 자면 머리가 센다는 이야기가 음력 그믐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센다는 우리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 모든 것은 어울림에서 시작되었다

교민들끼리 모여 골프, 배드민턴, 탁구, 축구, 등산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곤 하는데, 내 경우에는 등산과 아침 달리기를 통해 인맥을 넓히고 체력도 보강할 수 있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타슈켄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의 있는 우즈베키스탄 최고봉 침간산(침



토요 산행회와 함께 미국 생활의 즐거움을 더한다.

운(3,309m)을 찾는데, 각 줄기마다 매번 새로운 맛이 숨겨져 있다. 겨울에는 2m가 넘는 눈을 헤치며 오르는 짜릿함, 봄에는 돋아나는 새싹의 신비로움, 건기인 여름에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 풀이 말라 누렇게 변한 산등성이의 장관 등 같은 코스여도 매번 새로운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토요일을 기다리는 쏠쏠한 재미로 한 주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한편 타슈켄트는 아름답게 조성된 공원들이 많아 아침 달리기를 즐기기에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토요 산행 전후인 금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7.5km씩 달리다 보니 어느새 스마트폰 어플에 2,400km이라는 기록이 남았다. 아마 어플에 남지 않은 기록까지 3,000km를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달리기를 통해 단련한 체력 덕분에 산행에서도 힘을 낼 수 있었다. 산행회 중 최고령 회원이면서도 앞서서 오르는 내 모습에 동료들이 놀랄 정도였다.

돌아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은 어울리며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그 가운데 새로운 행복을 찾았고, 앞으로의 삶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해외에서



아침 달리기에 최적인 공원 숲길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해지고, 때로는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유로움을 즐기다 보면 매사에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보다 적극적인 활동 속에 NIPA 자문단으로서 더 큰 보람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즈베키스탄  
김재호

- 조선대학교 대학원/ 대기과학/ 박사 학위과정 수료
- 前 기상청 근무
- WFK NIPA Advisors – 우즈베키스탄 수문기상청 파견